

**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
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
지원하고 있습니다.**

<보도 내용 (한국경제, 2.2) >

◆ 카카오도 ‘택시플랫폼 공유’ 막혔다.

-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탓에 코엑터스는 콜 연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

□ 코엑터스는 일반택시와 차별화하여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SUV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(type 1)입니다.

- 플랫폼운송사업은 렌터카·자가용을 이용하여 일반택시와는 차별화된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영역이며, 일반택시 호출을 배차받으려면 일반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

□ 코엑터스는 카카오앱으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코엑터스 차량이 배차 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'22.1월, '24.1월 국토교통부에 구두 문의하였고,

- 국토교통부는 우티-레인포컴퍼니 연계 사례와 마찬가지로, “일반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 플랫폼운송사업(type 1)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”는 원칙에 따라 연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안내한 사안입니다.

【 1.31일, 우티-레인포컴퍼니 관련 보도설명자료 주요내용 】

- ▶ 국토교통부는 우티(택시플랫폼)와 레인포컴퍼니(플랫폼운송사업자) 간의 연계를 인가하면서,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취지와 레인포컴퍼니의 허가내용·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, 일반택시호출이 아닌 외국인, 기업 간 차량지원(B2B)으로 서비스를 한정토록 조건부과

□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간 연계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주열 (044-201-3823) |
| | | 담당자 | 팀 장 | 조태영 (044-201-4770) |
| | | | 사무관 | 노지훈 (044-201-4756) |
| | | | 사무관 | 서윤원 (044-201-3813) |

